

'국제선우' 결성 불교국 지원

'우리는 선우' 앞장... 캄보디아·미얀마 승단교육 후원

재가신행단체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가 (가칭)국제선우(회장 정승연)를 결성하고 불교국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부터 해외포교를 추진 해온 우리는 선우는 전쟁과 경제난으로 불교중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국가의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실천계획을 전달할 부서로 최근에 국제선우를 결성하고 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국제선우는 첫사업으로 지난 4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서 싸사나불교대학에 기부금 1천달

러와 문구류를 전달하고 매일 1천달러씩 승려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국제선우 회원 6명과 미얀마대사관 직원들이 참석했다.

미얀마 종교성장관을 대신하여 기부금을 전달받은 대사부인 주주 출라잉씨는 "이 선행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현재나 미래에서나 훌륭한 지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한국불자들의 미얀마 승단 지원에 감사사를 표했다.

미얀마 싸사나불교대학은 승려종합대학으로 5백여명의 스

남들이 재학하고 있으나 교재와 문구류가 절대부족해 학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제선우의 미얀마 불교대학후원은 우리는 선우가 펼치는 캄보디아 승단지원에 이은 두번째 불교국 지원사업.

우리는 선우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캄보디아 승단교육을 위해 매일 1천달러를 종교성장관 탕본스님(승정)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2차례에 걸친 캄보디아 현지방문을 통해 캄중고이원 현지에서 지하수 개발, 전기시설 설치, 가족사육지원

등 전쟁 난민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같은 우리는 선우의 불교국지원사업에 대해 남지심대표는 "각 나라의 불교도들이 서로 율타리가 되어 주지 않으면 세계속에서 불교를 중흥시키는 일은 요원하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동남아 불교국가에서는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선우는 화랑선우(육사포교), 선재선우(청소년포교)에 이은 세번째 우리는 선우 산하기구로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제선우는 캄보디아, 미얀마 이외에도 몽골, 티베트 등의 불교국가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라고 있다.

(이준업 기자)

"사찰 종토세 적용 부당하다"

통도사 말사 주지연수서 '대선공약 이행' 촉구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통도사 말사암 주지연수회에서 참석 스님들은 '토지투기와 재벌들의 과다 토지보유를 막기위해 시행된 종합토지세법의 사찰적용은 부당하다'며 즉각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사찰재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시비가 계속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일보 연재소설 불교비하 내용 '물'

경기일보 장편 연재소설인 <비림과 숲>(김현탁 작)에 불교를 비하하는 내용이 다뤄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에 따르면 최근 경기일보의 연재소설에서 "비구니스님이 웃을 때도 입을 닫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림과 함께 독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등 스님을 노리개로 등장시키고 있다"며 "경기일보측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포교행정 활성화 결의 조계종 포교국장 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산)은 지난달 28, 29일 양일간 화성 신송사에서 제2차 포교국장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16명이 참석 △포교국 활성화 △포교국장 임기보장 △연수원 건립 △사찰을 수련시설로 개방토록 하는 등 6개항에 걸친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부처님 점안식 봉행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 불교학성회(회장 안윤경 2년)는 지난 5일 동아리방에서 2학기 개강행 및 석가모니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환경문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범륜)은 14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현대 과학사상의 흐름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종덕 환경과 자연철학연구소장과 장희익교수(서울대)가 각각 '과학사상과 환경운동의 이념', '생명문제의 문명사적 의의'로 주제발제를 하며, 김명자(숙명여대교수) 문순홍(생태사회연구소) 차병제(시민환경연구소) 황태연(동국대)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승가대 장학금 20% 증액

중앙승가대(학장 송산스님)는 지난 22일 2학기 장학금을 지난 학기 지급된 장학금보다 약 20% 증액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확정 발표했다.

장학금 수혜자는 중북대상자 7명을 포함 81명으로 총 8천2백83원2천6백원이 지급된다.

개혁불사 유공자 포상

지난해 개혁회의 기간동안 조계종 개혁불사에 전력했던 승·재가 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종무원 청사 1층에서 거행된다. 이번 표창대상은 다음과 같다.

△통도대 석림동문회, 선우도량, 중앙승가대 동문회, 동국대 동림동문회, 실천불교승가회, 전승련, 중앙승가대 학생회, 동국대 석림회, 우리는 선우, 능인선원·석왕사·구룡사 신도회(이상 단체) △도각스님(개인).

29일 '부산 선우모임' 결성

부산지역 불교 제단체 실무자들의 모임인 21세기를 위한 선우모임(발기준비위원장 이기표)이 창립한다.

21세기를 위한 선우모임은 오는 15일 불교연합회 강당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29일 코모도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16일 대불청 이사회의

대불청청년회(중앙회장 이상번) 제5차 이사회의가 오는 16일 오후 8시 만해교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96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승인 및 대불청 사단법인 추진위원회 결성에 따른 의견을 나눈다.

김순복보살 장기 기증

지난 3일 교통사고로 입적한 월정사 말사 정암사 주지 혜종스님의 장례가 지난 5일 월정사에서 다비장으로 치러졌다.

한편 같은 날 입적한 정암사 신도 김순복(39세)씨가 사망전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지난 4일 장기이식 수술이 있었다.

대전 자광사 대법당 완공

탄허재단 10년만에...인재양성 노력

대전 자광사가 불사 10년만에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자광사(주지 원행스님)는 지난달 31일 신축불사를 완공, 스님과 신도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관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유성구 학하동에 자리한 자

광사는 (재)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정창열)이 탄허스님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86년 3월 신축불사를 추진, 착공 10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연건평 3백20여평 규모로 3층건물에 대웅전, 보광전, 적광전 등이 마련된 이번 불사에는

총공사비 21억7천여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1층 대웅전과 2층 보광전, 3층 적광전에는 석가모니불, 노사나불, 비로자나불이 각각 모셔졌다.

주지 원행스님은 "탄허스님은 민족의 통일과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화엄사상이라고 하셨다"며 "10년을 들여 불사를 한만큼 자광사가 화엄진리를 체득하는 인재양성의 도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자광사는 중부지역 불발포교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제막식에는 비룡스님(월정사 조실), 이청봉스님(대전사암원 회장)을 비롯, 흥선기 대전시장 등 각급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 준공을 축하했다.

결식노인급식소 '관음의 집' 개원

자원봉사연 오는 29일...강동구 길동에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오는 29일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관음의 집'(강동구 길동 364-4 만종빌딩 지하 1층)을 개원한다.

무료급식소 관음의 집은 안보현성보살이 강동구 길동 소재 만종빌딩의 지하 76평규모 1층 공간을 기증함으로써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 그 운영과 관리를 맡게됐다.

개원에 앞서 관음의 집은 이

미 지난달 16일 부터 매주 화·수·목요일 점심급식을 실시, 현재 5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관음의 집은 앞으로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결식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한편 관음의 집은 매일 네째 주 수요일에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이·미용도 실시할 계획이다.

향공사비 21억7천여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1층 대웅전과 2층 보광전, 3층 적광전에는 석가모니불, 노사나불, 비로자나불이 각각 모셔졌다.

주지 원행스님은 "탄허스님은 민족의 통일과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화엄사상이라고 하셨다"며 "10년을 들여 불사를 한만큼 자광사가 화엄진리를 체득하는 인재양성의 도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중 노동자 한마당

석왕사 청년회 지난 3일

석왕사 청년회(회장 이승락)는 지난 3일 "제10회 백중맞이 노동자 문화 한마당"을 석왕사 율화전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부천지역 청년 노동자 및 지역단체·대불청회원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청년들의 문화를 일깨우는 문화공연 한마당으로 마련됐다.

충청지역 사찰 비피해 심각

무량사·마곡사·백운사등 30여곳 훼손

지난달 말 중부지방을 휩쓴 집중호우로 충남도내 무량사등 전통사찰을 비롯한 30여개 중우문화재들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김시습 영정 등 보물 3점이 보관된 부여 무량사는 일주문 지붕, 도솔암 법당 지붕, 칠성각, 요사채 지붕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공주에서는 영귀대사 묘소의 봉분 및 경사지 2백m가 비에 떠내려 가고 마곡사 경내도로와 진입로 90m가 유실됐으며, 홍성군 결성면 한용운스님 생가의 담장이 5m 가량 금이 갔다.

또한 보령시 백운사도 대웅전 극락전과 요사채가 붕괴되

는 수난을 겪었다.

이밖에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14호) 동하층 분토 50여기가 유실되고 화엄사원등 각종 문화재들이 훼손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집계된 문화재 피해는 31건 16억원에 이른다"며 "빠른 시일내에 복구작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해인골프장 백지화 재촉구

건설저지공동대책위

문화부의 사업계획 취소결정으로 진정국면을 맞았던 해인사골프장 건설문제가 (주)가야개발의 취소제결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또다시 말문을 빚고 있다.

가야개발은 지난달 24일 취소제결취를 법원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며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

기했다.

따라서 이미 상당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가야개발이 계속해서 사업계획이행을 고집할 것으로 보여 해인사골프장 문제는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가야개발 측에 건설계획 즉각 철폐를 요구했다.

'참사랑 나눔의 밤' 행사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석화전시회 개최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태현)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아남프라자에서 석화전시회를 연데 이어 31일 이를 축하하는 '참사랑, 나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복지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

는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만든 석화 60여점과 봉사활동모습을 담은 사진 30여점이 전시됐다.

또한 결혼가족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나눔의 밤에서는 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례 발표와 창작 발표회가 열렸다.

청동금형틀 추가 발견

화엄사서...통일신라 판불기법 연구자료

구례 화엄사 5층석탑에서 다량의 소조불을 찍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금형틀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달 25일부터 구례군이 실시한 2차 발굴조사에서 뒷층 기단석내 적심부 해체과정에서 청동금형틀을 비롯, 금동제 방울, 수정, 철·목제 소탑, 철제

장신류, 손가락 등 총 42점의 유물이 수습됐다.

이중 청동금형틀은 앞면에 음각된 좌불상과 배면에 고리 형태의 손잡이가 달린 가로 6.8cm, 세로 6.4cm 크기로 8세기 중엽 통일신라 판불기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지례

성순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발: 9월 19일, 10월 17일
- 동참금: 295만원
- 일정: 서울-북경-서단-난주-가옥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문자탑고개-혼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탈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티베트·네팔 9일

- 출발: 9월 30일, 10월 21일
- 동참금: 210만원
- 일정: 서울-상해-성도-라사-장제-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황산·구화산 6일

—지정보살도량 구화산 순례—

- 출발: 9월 28일, 10월 26일
- 동참금: 95만원
- 일정: 서울-상해-황산-구화산-상해-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발: 9월 22일, 10월 13일
- 동참금: 188만원
-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인도·네팔 성지 순례 10일

—불교 7대 성지와 네팔의 불교사원 순례—

- 출발: 9월 27일, 10월 26일
- 동참금: 160만원
- 일정: 서울-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녹야원)-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गर-기원정사-사위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위어범부등)-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발: 9월 16일, 9월 30일
- 동참금: 100만원
- 일정: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시원—

- 출발: 9월 17일, 10월 15일
- 동참금: 95만원

대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 출발: 9월 20일, 10월 25일
- 동참금: 65만원

■ 여행조건 ● 호텔: 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 전일정 식사제공 ● 최소 출발인원: 10인 ● 전문 가이드 동행 ● 여행자 보험

HVECHO ADVENTURE TOURS, LTD. **국외여행업 제604호**

헤초여행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